

한국어 ‘X족(族)’ 유형에 대하여:

2013~2014년 신어 자료를 중심으로

임 욱 정*

I. 서론

기존 연구에서 사전 등재어로 된 ‘X족(族)’ 단어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들이 적지 않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로 나오는 ‘X족(族)’ 신어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형태론 쪽이나 사회·문화면에서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의미론이나 수사법 쪽으로 이러한 어휘를 다루는 것은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 흔하게 다루지 않은 면에서 ‘X족(族)’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 형식을 만들 때, 머릿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익숙한 지식을 동원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지 기제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 신어들은 언어 표현 방식 중의 하나인 수사법과 관련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람’과 관련된 어휘는 수사법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 보인다. 따라서 ‘X족’도 ‘사람’과 관련된 이상, 수사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X족’ 신어가 일시적이든 재미로든 사회의 필요로 만들어지든 형성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면서, 사회에서 널리 돌아서 유행성을 가지게 된 것과 관련 있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외에, 의사소통할 때 새로 나오는 개념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므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 언어 지식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만들어진 단어들을 쉽게 기억하거나 말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언어 경제성에 의한 약어(略語)도 이러한 ‘X족’ 어휘를 포함한 모든 신어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로써 본고에서는 ‘X족’ 신어 어휘를 특징에 따른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가장 최근 2년간 발간한 2013, 2014년 《신어 자료집》에서 추출한 것이다. 《신어 자료집》은 일정한 기간 동안 수집한 신어에 대한 뜻풀이와 용례를 기술한 자료로서 2002년부터 신어 및 사전 미등재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¹⁾ 본고에서는 미등재어를 제외한 신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한자어 어근 ‘족(族)’

1. ‘족(族)’의 의미

譚建川(2010: 43), 李晓东(2003: 19), 钱乃荣(2001)에 의하면, ‘斜陽族(しゃようぞく)’²⁾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국가에서 ‘X족’ 단어들의 기

1) 최초로 발간된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의 《신어 자료집》에는 신어와 사전 미등재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2) ‘斜陽族(しゃようぞく)’이란 말은 1947년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소설 《사양(斜陽)》에서 나타난 말이었다. ‘斜陽族’은 예전에 군 장교였거나 귀족이었던 사람과, 전쟁에서 일본의 패배나 전후에 일본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몰락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샌드위치맨으로 전락한 장군의 아들과 빈곤해지자 절망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사양족의 전형들이다. 다자이 자신도 전후에 가세가 기울 귀족 가문 출신으로 1948년 6월에 타마(多摩) 저수지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김용안 2009 참고).

원이라고 추정될 수 있다.³⁾ 이와 같이 일본어에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으로서의 ‘X족’ 용법이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생겨난 것은 일본 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⁴⁾

기존 ‘족’이 포함된 단어에서 ‘족’의 성격은 접사가 아닌 어근이지만, 구조상 그의 위치가 늘 단어의 맨 뒤에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접사화의 변화 과정에서 한 요인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자어 ‘귀족(貴族)’⁵⁾의 의미 범위가 확대된 것은 바로 어근으로서의 ‘족’이 접사화 과도기(過渡期)에서 나타난 언어 산물이다. ‘귀족’에서의 ‘족’은 이미 ‘가족, 종족’과 같은 기존 ‘족’의 의미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족’이 가지던 전통적인 ‘동일한 거래나 같은 지역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족’과 관련된 용법으로부터 조어력이 높은 ‘X족’으로의 변화는 주로 한자어 ‘족’의 기존 의미와 관련이 있다.

‘X족’ 공핵어(共核語)⁶⁾의 의미 성격은 중립적인 것이므로 사회에서 다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 평가를 가진 (준)접사보다 언중들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X족’은 사회 발전, 변화와 가장 밀접한 단어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러시아어에서 비롯된 ‘동반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영어 ‘sputnik(인공위성)’도 조어법에서 한국어 ‘X족’ 단어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지만, 단어 출현 시대(斜陽族(1948년), sputnik(1957년))를 고찰해 보았을 때, 본고에서는 ‘X족’ 단어들의 기원이 일본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4) 1979년 석유 위기로 인해 일본 경제가 침체했을 때 그 전에 회사에서 대량적으로 받았던 중, 노년층 관리계급 직원들이 강등 처지에 직면했기 때문에 만날 할 일이 없이 창문 옆에서 앉아 그냥 데스크를 쳐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던 ‘窓际族(まどぎわぞく)’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아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 또는 그런 사람(《표준국어대사전》 참고).

6) 본고에서는 ‘공통의 파생 규칙에 의해 형성된 단어 무리’에서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구성 성분을 강조하기 위해 ‘공핵어’라고 칭한다. 이에 대해 김창섭(2008: 440)에서는 ‘파생가족’이라고 하며, 또한 이에 비해 기존 술어인 ‘단어(가)족(famille de mots)’이란 동일 어근에 여러 가지 파생 접사나 다른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 합성어 무리를 가리킨다고 언급한 바 있다.

2. ‘족(族)’의 성격

‘X족’ 신어에서 ‘족’의 의미가 약화될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족’이 ‘종족, 친족’이란 ‘족’의 기본 의미와 전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신어가 돼 가는 과정에서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여 가리키기 때문에, 그 뜻이 일정한 정도로 추상화되므로 기존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또한 새로 생겨난 ‘X족’에서 ‘족’의 사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가 원래 지니고 있던 의미가 축소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족’은 문법적 의미는 강해지는 반면에, 어휘적 의미는 약해지는 것이다.⁷⁾ 따라서 ‘족’은 아직 접사가 되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점차 접사가 돼 가는 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근 뒤에 부착한 이 ‘족’의 새로운 용법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므로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서 진정한 접사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고는 신어 ‘X족’에서의 ‘족’은 접사가 아닌 준접사⁸⁾로 보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파생으로 만들어진 단어 가운데 후첨(後綴)로 붙이는 언어성분이 접사인지, 준접사⁹⁾인지를 쉽게 판별하는 방식이 있는데, 발음상 가볍게 읽게 된 것(light tone-variation, 輕音化)은 접사인 반면에, 가볍게 읽지 않는 것은 준접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X족’ 신어에서의 ‘족’은 중국어에서는 모두 접사가 아닌 준접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 표준 한국어는 성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족’이 준접사인지 접사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다른 것으로 정해야 한다.¹⁰⁾

7) Hopper & Traugott(2003: 7)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문법화’라고 하며, 문법화의 과정(cline of grammaticality)을 “content item > grammatical word > clitic > inflectional affix”와 같이 제시하였다.

8) 김창섭(1994: 21-22)에서는 단어형성론적으로만 존재하며 각각 독자적인 의미와 독자적인 용법을 가지고 있는, 즉 단어형성론적으로 독자성을 획득한 요소들을 ‘단어형성 전용 요소’라고 하였다.

9) 중국어에서는 ‘類詞綴’이라고 한다.

10) 노명희(2005: 100-108)에서는 접미한자어에 대해 10가지 판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X족’에서 ‘X’가 순수 ‘고유어’, ‘한자어’나 ‘외래어’, 혹은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나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등 (이상 배열 순서는 불문) 일곱 가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미가 역시 사람, 사물을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III. ‘X족’의 의미적 양상 및 특징

陆俭明(1993)에서는 ‘지칭’ 및 ‘서술’ 두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지칭(지시대상)’은 문법적으로는 체언 형식으로,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명칭으로 드러난다. ‘서술’은 서술하는 대상을 가리키고 문법적으로는 술어 형식으로,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명제(혹은 단언(assertion))로 드러난다(沈阳 편(2001: 298-299) 재인용). 또한 의문문으로 볼 때, 보통 ‘지칭(지시대상)’은 ‘무엇(what)’과, ‘서술’은 ‘어떻다(how)’와 대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X족’에 대해 아래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 【‘X’족: 어떤(부정수, an indefinite number) 사람들이 무엇(what)을 하는가?
→ 어떤(부정수) 사람들이 [‘X’가 담고 있는 동작, 행위를 한다. ⇒ 어떤(how) 사람인가? → [‘X’가 담고 있는 동작, 행위를 한다는 사람들 → ‘X’족]

‘X족’에서의 ‘X’는 가끔씩 지칭(지시대상)을 가리키는 것(예: 금리 노마드(金利 nomad)족,¹¹⁾ 핫딜 노마드(hotdeal nomad)족,¹²⁾ 뉴어덜트(new adult)족,¹³⁾ 어모털(amortal)족,¹⁴⁾ 뉴맨(new man)족,¹⁵⁾ 소두(小頭)족 등, 이

또한 논의에서 ‘-족’의 성격을 ‘접사’로 보고 있지만, ‘-족’이 지닌 어근 성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접미사로서의 성격이 어근으로서의 성격보다 크다’는 특성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X족’에서의 ‘족’을 준 접사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11)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12)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특별히 싸게 파는 시간대를 찾아다니며 쇼핑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때 ‘X’ 자리에 대입한 구성 성분이 대부분 이미 [+사람]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명시적인 지시대상을 가리킴)이 있기도 하지만, 주로 술어 성분이다. 예컨대, 황혼 육아(黃昏 育兒)족,¹⁶⁾ 여미(yummy)족,¹⁷⁾ 그림피(grumpy)족,¹⁸⁾ 린백(lean back)족¹⁹⁾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또한 어떤 ‘X’는 체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의 ‘X족’ 전체를 보면, 이러한 ‘X’는 어떤 동작, 행위를 드러낸 서술 기능을 보이는 것이다. 예컨대, 독강(獨講)족,²⁰⁾ 감성 캠핑(感性 camping)족,²¹⁾ 셀카(self camera)족,²²⁾ 월세 통장(月賃 通帳)족,²³⁾ 출퇴근 쇼핑(出退勤 shopping)족,²⁴⁾ 미드나이트워킹(midnight walking)족,²⁵⁾ 갓수(god手)족,²⁶⁾ 미세스 주스(Mrs. juice)족,²⁷⁾ 미세스 커피(Mrs. coffee)

-
- 13)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아낌없이 지출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 14) 고령임에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 15) 확고한 취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면서 이에 대한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젊은 남성. 또는 그런 무리.[2014]
- 16) 한문 문법으로 보면 ‘육아(育兒)’를 ‘술목 구조’로 보아야 한다. 황혼 육아족: 손주를 직접 키우는 조부모. 또는 그런 무리.[2014]
- 17)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남성. 주로 외모나 패션 따위에 관심이 많은 남성을 일컫는다.[2014]
- 18) 과거에는 전문직에 종사했지만 현재에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 19) 의자나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 20) 이는 사람 없이 혼자 강의를 듣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 21)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따위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면서 감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 22)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 23) 집이나 방, 상가 등을 임대하고 그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 24) 출퇴근을 하면서 쇼핑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시 따위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다.[2014]
- 25) 늦은 밤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 26)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직장인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족²⁸⁾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다시 말하면, ‘X족’에서 ‘X’ 자체가 뒤에 있는 ‘족’을 수식하는 수식 성분처럼 보이지만, ‘X족’ 전체의 의미를 따져보면 수식 성분이 아닌 서술 성분이다. 즉, ‘X족’의 ‘X’는 아래 (2)와 같이 일반적으로 전체 의미에서 서술하는 성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① 황혼 육아(黃昏 育兒)족: [손주를 직접 키운다 [조부모(들)].
- ② 여미(yummy)족: [주로 외모,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남성(들)].
- ③ 감성 캠핑(感性 camping)족: [감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캠핑을 한다 [사람(들)].
- ④ 갓수(god手)족: [신과 같은 백수 생활을 한다 [사람(들)].²⁹⁾
- ⑤ 셀피(selfie)족 / 셀카(self camera)족: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다 [사람(들)].

그러므로 [+어떤 새로운 생활 방식(동작, 행위 포함)이나 태도라는 의미 자질을 드러내는 언어 성분을 ‘X’ 자리에 채워 넣으면 ‘X족’ 신어를 형성할 것이다. 그 중 ‘X’ 자리에 들어가 있는 언어 성분은 모두 서술 성분인 것을 위의 ①-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X족’에서 ‘X’는 일반적으로는 단어 이상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단어 이하의 언어 단위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한 ‘X’가 지니고 있는 동적인 서술성과 관련된다. 여기서 소위 ‘동적인 서술성’이란 ‘X’ 자리에 해당하는 구성 성분은 동사든, 형용사든, 혹은 뭐든 상관없이 그가 ‘X족’이란 전체 단어의 의미에서 동작이나 행위 등을 담고 있는 정적이 아닌 동적인 이미지의 성격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예컨대, 위에 제시한 ‘여미(yummy)족’은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국립국어원(2014)에서는 ‘여미(yummy)족’에 대해 ‘주로 외모, 패션에 관

27) 주스를 살 때 물이나 첨가물을 섞지 않고 생즙으로 만든 주스만 고집하는 결혼한 여성. 또는 그런 무리. ⇒ 규범 표기는 ‘미시즈 주스족’이다.[2014]

28) 소꿉을 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즐기는 결혼한 여성. 또는 그런 무리. ⇒ 규범 표기는 ‘미시즈 커피족’이다.[2014]

29)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참고. 각주 26)과 동일한 뜻으로 볼 수 있다.

심이 많은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남성'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여미족'을 의미에 따라 [+주로 외모, 패션에 관심이 많다]와 [+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남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어에서 'X' 자리에 위치한 '여미'의 의미를 통해 'X'가 '주로 외모, 패션에 관심이 많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X'를 형용사(즉 '관심이 많다')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여미족'의 의미 자질을 '[+주로 외모,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남성]'과 같이 분석해야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서술성 성분이므로 서술하는 내용이 가급적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 성분들(즉 단어 이상)과 결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X족'에서의 'X'는 일반적으로는 1음절만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눔프(NOOMP)족,³⁰⁾ 셀피(selfie)족,³¹⁾ 솔캠(solo camping)족³²⁾'과 같은 예들은 앞서 제시한 'X'가 동적인 서술 성분이어야 하는 것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러한 단어들은 어형 삭감을 거쳐 만들어진 것(약어, 혼성어 등 포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어 전체의 의미를 따져보면, 이와 같은 단어들은 역시 앞서 언급한 'X'가 지니고 있는 동적인 서술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X족'의 유형

기존 연구에서 'X족'에서 어떤 사람들(혹은 집단)의 속성을 가리키는 'X'를 아래 (3)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30)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비용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31) 자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 셀카족.[2014]

32) 혼자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따위로 나가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 (3) ① 공동 행위 특징을 가진 사람들 ② 공동 생각이나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
 ③ 공동 취미를 가진 사람들 ④ 생활에서 같은 경우를 만난 사람들 ⑤ 공동
 외적인 이미지를 드러낸 사람들 ⑥ 공동 내적인 심리 특징을 가진 사람들 ⑦
 공동 직업 특징을 가진 사람들 등.

그러나 이들처럼 세세하게 분류한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분류 유형이 일곱 개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한 것들에서 경계가 애매모호하여 서로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분류한 것에서 ‘X족’ 공백어를 명명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일부 ‘X’가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수사법이 ‘X족’에 짙은 이미지 색채를 부여하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1. 의미에 따른 ‘X족’의 유형

1) ‘X족’이 부각된 특징에 따른 분류(즉 외적인 의미)

주관적인 ‘X족’의 분류 기준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 ‘X족’이 사회 시대별로 부각되는 특성에 대해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X족’은 대부분 사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X족’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 (ㄱ)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드러내는 ‘X족’이다.

예컨대, 런피스(running one-piece)족,³³⁾ 린백(lean back)족, 모루밍(mobile showrooming)족,³⁴⁾ 셀피(selfie)족, 셀카(self camera)족, 테테크(data tech)족,³⁵⁾ 출장(出場)족,³⁶⁾ 퇴장(退場)족³⁷⁾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33) 원피스를 입고 러닝화를 신은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34)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뒤, 모바일 쇼핑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35) 데이터 사용량을 줄여 통신비를 절약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ㄴ) 원래는 언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많이 전파되어 있는 ‘X족’이다.

이러한 ‘X족’은 전통사회에는 출현 빈도가 적거나 언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현대 사회에서 언어에 사용됨에 따라 특별히 하나의 지시명칭을 만들어 주거나 많이 전파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널리 전파된 것은 이러한 ‘X족’ 단어들을 만들 때, 다양한 형상화된 수사법을 사용하여 언중들에게 참신함, 재미를 줄 수 있는 것 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알봉(알封)족,³⁶⁾ 금리 노마드(金利 nomad)족, 오디(OD; outdoor diet)족,³⁹⁾ 뉴어덜트(new adult)족, 커피캠(couple camping)족,⁴⁰⁾ 펫캠(pet family)족⁴¹⁾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ㄷ) 용납되지 못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했던 것으로부터 유행하는 대상으로 변모된 ‘X족’이다.

이러한 ‘X족’이 드러난 현상은 전통사회에는 존재하긴 했지만, 당시 사회 가치관에는 아예 용납되지 못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했던 것이었으나, 오늘 날에는 사회가 개방되며 사람들이 신선함, 남과 다른 특수성을 추구하므로, 오히려 널리 유행된 것이다. 예컨대, 갓수(god手)족, 워런치(walking lunch)족,⁴²⁾ 중박(中박)족,⁴³⁾ 미드나이트워킹(midnight walking)족, 빨대족,⁴⁴⁾ 월천(月千)족,⁴⁵⁾ 여미(yummy)족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36)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근길에 장을 보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37) 스마트폰을 이용해 퇴근길에 장을 보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38) 날개 포장된 물건을 필요한 양만 소량으로 구매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열매나 곡식의 날개를 세는 단위 ‘알’과 봉지 따위에 담긴 물건을 세는 단위인 ‘봉’이 결합한 말이다.[2014]

39) 야외 활동을 통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40) 같이 캠핑을 하는 커플. 또는 그런 무리.[2014]

41)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42)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43) 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중규모의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 또는 그런 무리.[2014]

2) ‘X족’ 구조에 따른 분류(즉 내적인 의미)

여중을 막론하고 ‘X족’ 공핵어를 의미적으로 보면, 대개 ‘의미 명확류’, ‘의미 융합류’, 그리고 ‘의미 불투명류’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된다.

(ㄱ) ‘의미 명확류’

‘X족’ 공핵어가 지닌 의미를 쉽게 예측 가능한 유형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X족’에서 그 ‘족’이 지니고 있는 뚜렷한 속성, 특징을 바로 그 앞에 위치하는 ‘X’라는 성분이 지닌 의미에 의해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⁴⁶⁾ 즉, 이와 같은 ‘X’는 순수한 직설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소두(小頭)족,⁴⁷⁾ 출퇴근 쇼핑(出退勤 shopping)족, 줌마 성형(줌마 成形)족⁴⁸⁾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ㄴ) ‘의미 융합류’

‘X족’ 공핵어가 지닌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유형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X’는 그가 지닌 기존 뜻으로만은 아닌 환유⁴⁹⁾나 은유⁵⁰⁾와 같은

44) 30대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45) 월세로 천만 원을 내고 사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여유 자금이 있어 고급 주택이나 빌라에서 살고자 하지만 매매 과정이 번거롭고 관리하기가 힘든 집을 소유하는 대신에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살고 이사하기에 편리한 월셋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2013]

46) 앞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어 ‘X족’에서는 ‘X’가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들(즉 “족”)을’ 범주화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47) 머리가 작은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48) 이럴 때는, ‘줌마’는 ‘아줌마’에서 절단된 것임을 알고 있는 전제가 필요하다. 줌마 성형족: 아름다워지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아줌마. 또는 그런 무리.[2014]

49)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서 표현하는 수사법. 숙녀를 ‘하이힐’로, 한민족을 ‘흰옷’으로 표현하는 것 따위이다(《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인지 기제로 보면, 지시 대상과 비유 대상 간의 인접성(proximity)에 의한 것이다.

50)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 예로는 ‘내 마음은 호수요.’ 따위가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인지 기제로 보면, 지시 대상과 비유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에 의한 것이다.

수사법도 더불어 이용하여 만들어진 유형이다. 예컨대, 갓수(god手)족, 금리노마드(金利 nomad)족, 린백(lean back)족, 알봉(알封)족, 여미(yummy)족, 파킹 투자(parking 투자)족,⁵¹⁾ 미세스 주스(Mrs. juice)족, 미세스 커피(Mrs. coffee)족, 황혼 육아(黃昏 育兒)족, 빨대족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ㄷ) ‘의미 불투명류’

‘X족’에 대해 일정한 기존 인식이 없으면 그 뜻을 거의 예측 불가능한 유형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X’는 어형 삭감을 거친 약자나 약어 혹은 혼성어(blending)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X’ 형태적으로의 재구조화와 관련된다. 예컨대, 뚝뚝(NOOMP; not out of my pocket)족, 비와이오디(bring your own device)족,⁵²⁾ 오디(OD; outdoor diet)족, 에스(solo)족,⁵³⁾ 포비(for baby)족,⁵⁴⁾ 나핑(night camping)족,⁵⁵⁾ 런피스(running one-piece)족, 셀카(self camera)족, 솔캠(solo camping)족, 혼밥족,⁵⁶⁾ 월천(月千)족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2. 메메틱에 따른 ‘X족’의 유형

1) 메메틱(memetic)과 밈(meme)

메메틱(memetic)이란 다윈(Darwin) 진화론(evolutionary theory)의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 진화 법칙을 설명하는 한 새로운 이론을 가리킨다. 메메틱에서 가장 핵심적인 ‘밈(meme)’⁵⁷⁾은 신다윈설(Neo-Darwinism)을 정립한

51) 투자 대상을 결정하기 전에, 손실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투자처에 돈을 맡겨 두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52)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따위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53) 혼자 사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3]

54)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55) 밤에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따위로 나가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56) 평소 혼자서 식사를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2014]

Richard Dawkins의 *The Selfish Gene*(1976)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었다.

Richard Dawkins의 Meme 이론에서 유전자(DNA 복제자)는 다윈의 자연 선택(혹은 적응) 이론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 전파되며, 또한 유전자뿐 아니라 모든 복제자도 비슷한 원리에 따라 공동체 내에 전파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회 내에서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행동이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고, 이 사회·문화적 전파현상에서 유전자에 대응하는 요소를 ‘밈(meme)’이라고 하였다.⁵⁷⁾ 밈(meme)에는 단일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 즉 둘 이상의 밈이 서로 결합되어 동시에 복제된 것도 있다. 그 중에서 복잡한 밈(memplexes)은 단일한 밈보다 더 쉽게 복제되므로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⁵⁹⁾

그 외에, 李宇明(1999: 146-157)에서는 메메틱(memetic)에 따라 신어를 만드는 방식 중의 하나인 ‘vocabulary meme(詞語模)’을 제시하였다.

Vocabulary meme이란 신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지닌 모듈(module)을 가리킨다. 이 모듈은 ‘모듈의 표지(模標)’와 ‘모듈의 틀(模槽)’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X족’과 같은 vocabulary meme에서 집단의 뜻을 가진 ‘족’은 모듈의 표지(模標)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속성]이란 의미 자질을 드러내는 ‘X’는 모듈의 틀(模槽)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틀을 통해 수많은 공핵어를 만들 수 있다.⁶⁰⁾

57) 복제된 것이라는 그리스 단어 ‘mimema’에서 나온 ‘mimeme’을, 유전자(gene)과 유사한 한 음절 단어로 만들어서 ‘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 Richard Dawkins(1989: 192)에서는 “We need a name for the new replicator, a noun that conveys the idea of a unit of cultural transmission, or a unit of *imitation*. ‘Mimeme’ comes from a suitable Greek root, but I want a monosyllable that sounds a bit like ‘gene’. I hope my classicist friends will forgive me if I abbreviate mimeme to *meme*. If it is any consolation, it could alternatively be thought of as being related to ‘memory’, or to the French word *même*. It should be pronounced to rhyme with ‘cream’”이라고 하였다(<http://books.google.com/?id=WkHO9HI7koEC&pg=PA192> 참고).

58) 박진호(2015) ‘한국어의 역사’ 강의 자료 참고.

59) Blackmore(1999) 참고.

60) Vocabulary meme이 강한 조어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꽤 많은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Vocabulary meme은 이렇게 강한 조어력을 지니는 것은 아래 세 가지

이론적으로는 vocabulary meme은 조어법에 속하는 것이지만 조어법보다 더 구체적이며, 특정한 단어, 혹은 단어 이상의 언어 성분을 모듈의 표지(模標)로 한다. 또한 조어법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나, vocabulary meme은 단어뿐만 아니라 구(句)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 절벽, 임금 절벽, 일자리 절벽’ 등이다.

또한 vocabulary meme을 주로 ‘앞 빈자리’와 ‘뒤 빈자리’, 그리고 소수의 ‘가운데 빈자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빈자리”란 ‘x’의 위치를 가리킨다. 이로써 본고에서는 李宇明(1999)에서 제시한 이 vocabulary meme을 ‘ $f(x)=x\beta$ ’, ‘ $f(x)=\beta x$ ’, 또한 ‘ $f(x)=\alpha x\beta$ ’와 같은 세 가지 함수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 $f(x)$ ’를 일종의 vocabulary meme으로 볼 수 있고, ‘x’를 바로 ‘모듈의 틀(즉 “빈자리”의 위치)’이라고 할 수 있으며, ‘ α ’나 ‘ β ’를 ‘모듈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⁶¹⁾ 이 논의에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단어 형성하기가 간편하다.

사람들이 ‘죽’과 같은 신어를 만들 때, 필요한 대로 언어사회에서 형성된 vocabulary meme의 ‘틀’에 어떤 어휘소, 단어, 혹은 구 등을 집어넣으면 하나의 새로운 ‘죽’ 신어가 바로 완성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들은 언중들에게 친숙감까지 줄 것이다.

둘째, vocabulary meme을 통해 신어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중들의 이들 신어에 대한 사고방식, 언어 관습 등도 엿볼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vocabulary meme은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받거나 발전이 빠른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61) Vocabulary meme의 각 유형과 함수의 대응관계를 아래 ①-③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① ‘앞 빈자리’ 유형이란 $f(x)=x\beta$ 에서 독립변수 ‘x’가 불변수 ‘ β ’ 앞에 위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β : (준)접사 성격을 지닌 구성 성분임). 다시 말하면 $f(x)=x\beta$ 는 접미파생어(본고에서 ‘준접사’로 보고 있는 예도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뒤 빈자리’ 유형이란 $f(x)=\beta x$ 에서 독립변수 ‘x’가 불변수 ‘ β ’ 뒤에 위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β : (준)접사 성격을 지닌 구성 성분임). 다시 말하면 $f(x)=\beta x$ 는 접두파생어(본고에서 ‘준접사’로 보고 있는 예도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운데 빈자리’ 유형이란 한 vocabulary meme에 모듈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빈자리 앞에 있고, 또 하나는 빈자리 뒤에 있다. 즉 vocabulary

따라 한국어 신어로서의 'X족' 공핵어는 '앞 빈자리' 유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전자형 밈' 및 '표현형 밈'

Blackmore(1999),⁶²⁾ 何自然(2005)에서는 메메틱(memetic) 관점에서 보면, 언어 밈에 관한 정보의 복사와 전파 방식을 유전자형(genotype) 및 표현형(phenotype)⁶³⁾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소위 유전자형이란 언어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동일하지만 다른 형식으로 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에 표현형이란 표현 형식이 동일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부연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 'X족'의 복제 및 전파⁶⁴⁾와 관련되어 있는 유형은 '표현형 밈'이다.

표현형 밈⁶⁵⁾은 다시 아래 (ㄱ), (ㄴ), (ㄷ)처럼 나뉘어 있다.

(ㄱ) 동음이의(同音異義)로 옮기는 유형

공핵어를 이루는 밈(예: 'X족')의 구조가 유지되면서 구성 성분이 동음이의어로 바뀌는 것이다. 예컨대, 월천(月千)족(月天, 越川과 비교)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ㄴ) 동형연상(같은 형태로 연상시킴) 유형

구성 성분의 형태가 바뀌지 않으나, 다른 언어 환경으로 옮기기 때문에

meme을 $f(x) = \alpha x \beta$ 처럼 제시할 수 있다('x': 독립변수, ' α ', ' β ': 불변수, α 혹은 β : (준)접사 성격을 지닌 구성 성분임).

62) Blackmore(1999) *The Meme Machine*이라는 저서에서 밈(meme)과 언어를 연결 지었다.

63) "... Let us say that the meme in my brain is the equivalent of the genotype and my behaviour in the kitchen is the equivalent of the phenotype." (Blackmore 1999: 61)

64) "... memes depend on being transmitted from one person to another and, by definition, this is done by imitation." (Blackmore 1999: 58)

65) 何自然(2005: 59-60)에서는 '밈(meme)의 복제 및 전파 과정'을 겉으로 보이는 것을 '표현형 밈'으로 본다.

기존과 다른 의미로 연상된다. 예컨대, 출장(出場)족, 퇴장(退場)족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ㄷ) 동구이의(同構異義)로 옮기는 유형

공핵어를 이루는 밈(예: ‘X족’)의 외적인 구조(틀)는 같으나, 내용(즉 의미, 형태)은 달라지며 다른 구성 성분으로 대체한다. 예컨대, 갓수족[백수→갓수, 런피스(running one-piece)족[원피스→런피스], 모루밍(mobile showrooming)족[쇼루밍→모루밍], 테테크족[재테크→테테크]과 같은 혼성어나 유추로 만들어진 신어에서 많이 나온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X족’은 표현형에 속한 밈(mem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유전자형 밈’이 있는데, 이는 아래 (a), (b)와 같이 두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X족’의 복제 및 전파와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기로 한다.⁶⁶⁾

(a) 동일한 내용 정보가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된 것이다. 예컨대, 슬로건(slogan), 전달, 인용 내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b) 동일한 내용 정보가 다른 형식으로 전파된 것이다. 주로 통시적인 어휘 현상, 방언, 혹은 일부 인터넷 언어, 숫자어,⁶⁷⁾ 음역어 등에서 많이 보인다.

66) 본고에서 ‘유전자형 밈’에 속한 이 두 세부 유형은 앞서 제시한 ‘표현형 밈’과 달리 ‘X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대별하기 위해 항목 번호를 일부러 (a), (b)로 적는다.

67) 예컨대, 8282(빨리빨리), 1004(천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앞서 제시한 여러 논의의 관점을 종합하여 한국어 ‘X족(族)’ 신어에 대한 분류 방식을 아래와 같이 새로 세움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① 의미에 따른 분류

㉠ 외적인 의미

근거	분류 기준	번호	유형	예
의미 (외적인 의미)	‘X족’이 부각된 시대적 특징	1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드러내는 ‘X족’이다.	런피스(running one-piece)족, 린백(lean back)족, 모루밍(mobile showrooming)족, 셀피(selfie)족, 셀카(self camera)족, 데테크(data tech)족, 출장(出張)족, 퇴장(退場)족
		2	원래는 연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많이 전파되어 있는 ‘X족’이다.	알봉(알봉)족, 금리 노마드(金利 nomad)족, 오디(OD; outdoor diet)족, 뉴어덜트(new adult)족, 커피캠(couple camping)족, 펫팸(pet family)족
		3	용납되지 못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했던 것로부터 유행하는 대상으로 변모된 ‘X족’이다.	갓수(god手)족, 워런치(walking lunch)족, 중박(中박)족, 미드나이트워킹(midnight walking)족, 빨대족, 월천(月千)족, 여미(yummy)족

㉞ 내적인 의미

근거	분류 기준	번호	유형	예
의미 (내적인 의미)	‘X족’의 의미 투명성	1	‘의미 명확류’	소두(小頭)족, 출퇴근쇼핑(出退勤 shopping)족, 줌마 성형(줌마 成形)족
		2	‘의미 융합류’	갓수(god手)족, 금리 노마드(金利 nomad)족, 알봉(알封)족, 여미(yummy)족, 파킹 투자(parking 투자)족, 미세스 주스(Mrs. juice)족, 미세스 커피(Mrs. coffee)족, 황혼 육아(黃昏 育兒)족, 빨대족
		3	‘의미 불투명류’	넵프(NOOMP; not out of my pocket)족, 오디(OD; outdoor diet)족, 포비(for baby)족, 나핑(night camping)족, 셀카(self camera)족, 혼밥족, 월천(月千)족

㉟ 메메틱(memetic)에 따른 분류

근거	분류 기준	번호	유형	예
메메틱 (memetic)	표현형 밈 (pheno- typical meme)	1	동음이의(同音異義)로 옳기는 유형	월천(月千)족[月天, 越川과 비교]
		2	동형연상(같은 형태로 연상시킴) 유형	출장(出場)족, 퇴장(退場)족
		3	동구이의(同構異義)로 옳기는 유형	갓수족(백수→갓수, 모루밍 (mobile showroaming)족(쇼 루밍→모루밍, 테테크족(재 테크→테테크)

참고문헌

1. 논저류

- 강희숙(2015), 〈‘사람’ 관련 신어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한국언어문학》 95, 한국언어문학회, 7-28.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원(2013, 2014), 《신어 자료집》.
- 김영선·박주형·임종주(2015), 〈신어의 인칭 접미사 연구〉, 《동남어문논집》 39, 동남어문학회, 5-33.
- 김용안(2009),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제이앤씨.
- 김정아·김예니·이수진(2013), 〈신어의 [+사람] 어휘의 형태·의미적 특성: 2002, 2003, 2004, 2005, 2012년 신어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58, 한국문화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51-76.
-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8),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 남길임·송현주·최준(2015), 〈현대 한국어 [+사람] 신어의 사회·문화적 의미〉, 《한국사전학》 25, 한국사전학회, 39-67.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박진호(2015), ‘한국어의 역사’ 강의 자료.
- 박형익(2003), 〈국어 사전에서의 한자어 접미사와 혼종어 접미사〉, 《한국어학》 21, 한국어학회, 155-185.
- 손춘섭(2012), 〈[+사람] 신어 형성 접사의 생산성과 의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253-289.
- 鲁瑛(2010), 〈“XX族”词类的语言学研究〉, 《外国语文》 2, 四川外国语大学, 71- 75.
- 谭建川(2010), 〈日语流行语“~族”的发展及其翻译〉, 《日语知识》 10, 大连外国语学院, 42-44.
- 沈家煊(2004), 〈语用原则、语用推理和语义演变〉, 《外语教学与研究》 4, 北京外国语大学, 243-251.
- 沈阳 编(2001), 《20世纪现代汉语语法“八大家” - 陆俭明选集》, 东北师范大学出版社, 298-299.

- 李曉東(2003), 〈日語流行語中的“族”〉, 《日語知識》 9, 大連外國語學院, 19-20.
錢乃榮(2001), 《酷語 2000》, 上海教育出版社.
何自然(2005), 〈語言中的模因〉, 《語言科學》 6, 徐州師範大學語言所, 54-64.
邢福義 等(1999), 《漢語法特點面面觀(李宇明(1999) 논저도 포함)》, 北京語言文化出版社, 146-157.

-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pper, P. J. & E. C. Traugott(2003), *Grammaticalization*, 2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wkins, Richard(1976/1989), *The Selfish Gene*, 2d ed, Oxford University Press.
Blackmore, Susan(1999), *The Meme Machine*, Oxford University Press.

2. 전자자료

- 국립국어원 - <http://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05255&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웹사전 - <http://dic.naver.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台灣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 <http://dict.revised.moe.edu.tw/cbdic/search.htm>